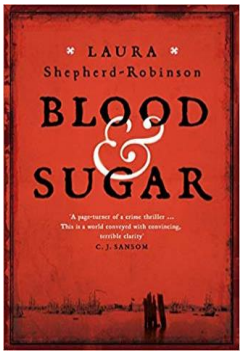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BLOOD & SUGAR
가제 : 실종
저자 : Laura Shepherd-Robinson
출판사: Pan Macmillan U.K
발행일: 2020년 1월 9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범죄

*** "조지 왕 시대의 영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범죄 소설"-「선데이 타임즈」**
"영국 노예 무역의 역사 속 공포를 폭로하는 놀라운 역사적 스릴러"-『The American Boy』의 저자, 앤드류 테일러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던 1781년 6 월의 어느 여름 날, 데프트포드 부둣가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된다. 그의 죽음에는 어떤 어둡고 슬픈 비밀이 숨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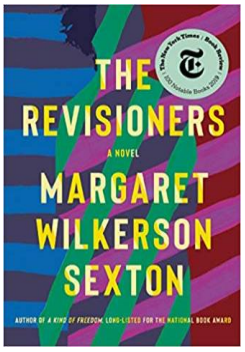
곧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노예선을 맡게 될 젊은 야간 경비원 내서니얼 그림쇼는 자욱히 내려 앉은 안개를 헤쳐나가며 데프트포드 부둣가로 향하고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 안개를 '악마의 숨결'이라고 묘사하곤 했는데 그 안개 속에서는 강에서 피어오르는 왠지 음울한 기운의 악취마저 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내서니얼은 얼마 안 가 부두 주변에 어부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서니얼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마침 그곳에 도착해 있던 치안 판사 페리그린 차일드를 사건 현장으로 안내했다.

부두에는 철제 고리가 달린 긴 기둥이 있었는데 원래 그 곳은 어부들이 그 날 어획한 가장 큰 물고기나 상어들을 달아 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 곳에 걸려 있는 것은 상어가 아니라 사람의 알몸 시체였다. 그 시신은 팔이 뒤로 묶여 있었는데 가슴과 등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허벅지, 귀, 코, 입 주변도 피 얼룩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분명 그것은 끔찍한 고문의 흔적이었다. 죽은 남자는 약 서른 정도 되어 보였고 길고 얇은 검은 머리칼에 피부는 흰색이었다. 목 주변에는 칼 자국이 있었고 왼쪽 가슴 위에는 기이한 문양이 있었는데 한쪽 면에 왕관이 씌워져 있는 초승달 모양이었다. 내서니얼은 단숨에 그 문양의 의미를 알아 챌 수 있었다. 그 문양은 당시 노예 신분임을 표시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의 몸에 새겨 넣었던 표식이었던 것이다. 죽은 남자는 판사 페리그린도 익히 알고 있던 한 신사였다. 판사는 우선 시신을 끌어내릴 것을 명령했고 당분간 아무에게도 이 사건이 대해 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쟁 영웅 해리 코샴은 유망한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막 정치 경력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오랜 친구 태드 아처의 누이 아멜리아 아처였다. 해리는 남편을 잃고 영국으로 돌아온 그녀가 십 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내심 의심스러웠지만 친구와의 옛정을 생각해 그녀를 집안으로 들였다. 해리는 아멜리아의 초라한 행색을 살펴보며 혹시 그녀가 자신에게 돈이라도 빌리러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멜리아가 그녀를 찾아온 이유는 전혀 예상 밖의 이유였다. 그건 바로 그녀의 오빠 태드가 노예 산업을 종식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영국 내 노예 산업의 본거지인 데프트포드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지 이제 4일째 되었다는 것이었다. 해리는 그제서야 변호사인 태드가 열렬한 노예제 폐지론자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겨우 4일간의 실종은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아멜리아의 생각은 달랐다. 태드가 얼마 전부터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하다 살해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멜리아는 아마 노예 무역업자들 및 그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권력자들과 관련된 어떤 어두운 음모가 태드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어 아멜리아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해리 코샴을 찾아가라는 오빠의 말을 따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아멜리아가 돌아가고 난 그 날 밤, 태드는 데프트포드로 찾아가 오빠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는 아멜리아의 말에 대해 생각하느라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자칫 하다간 자신의 정치 인생은 물론 가족의 안위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리는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오랜 친구의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 만은 없었고 조사를 위해 데프트포드로 향한다. 하지만 그를 마주한 사람들은 하나 같이 그의 질문에 대해 섣불리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해리는 곧 데프트포드에서 발견된 태드의 시신을 찾게 되고 시신에 남은 흔적을 통해 그가 노예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단순한 고위층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인도 제도의 거대 기업, 그리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좌지우지할만한 권력을 가진 정부 인사들까지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게된다. 또한 대서양을 가로질러 노예를 운반하는 노예 선박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들만큼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낸다. 그리고 친구 태드를 죽인 범인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인 한 흑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며 혼란에 빠진다. 다양한 인간 군상과 생생한 런던의 실제 장소들이 등장하는, 1700년대 실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쓰여진 범죄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라 셰퍼드 로빈슨은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런던대학교 경제 학부에서 정치 이론 석사 학위를, 시민 대학에서는 문예 창작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제목 : THE REVISIONERS

가제 : 조세핀, 아바

저자 : Margaret Sexton Wilkerson

출판사: Counterpoint

발행일: 2019년 11월 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2019년 11월 아마존 선정 최고의 소설, 2020년 조이스 캐럴 오츠상 후보작**

*** "이 놀라운 소설은 비록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혈연으로 연결된 두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소설의 줄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 이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뉴욕 타임즈**

1925년, 조세핀은 한창 번창하고 있는 농장의 어엿한 주인이다. 어린 시절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 덕분에 힘겹게 노예제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흑인 여성으로서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한편,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조세핀의 후손인 아바는 얼마 전 직장을 잃은 싱글맘이다. 흑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아바에겐 부유한 이모 마르타가 있었는데 아바는 살길을 모색하는 동안 그녀의 집에 지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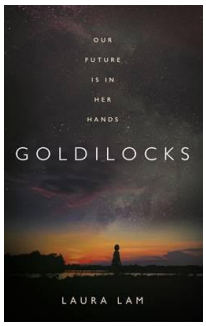
2017년, 아바는 백인인데다 나이까지 많은 노인의 집에 가기를 꺼려하는 열두살 아들 킹을 겨우 구슬려 마르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마르타의 집은 거대한 저택이었고, 비싸고 좋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마르타가 킹에게 집안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당부하고 있던 그 때 마치 유령처럼 마르타가 갑자기 나타난다. 마르타는 일흔 여덟인 나이치고는 그렇게 주름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항상 화려한 옷차림에 좋은 향기가 풍겼다. 사실 아바는 어린 시절부터 마르타를 자주 만난 것도 아니었고 둘 사이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 또한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다. 아바의 부모님은 아바가 뱃속에 있을 때 헤어졌지만, 마르타는 매년 여름이면 아바를 찾아왔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아바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주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마르타는 아바에게 더욱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 아바의 남편이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했을 무렵 그녀는 아바를 대신해 어린 킹을 돌봐주었다. 어느 토요일인가에는 아바에게 전화를 걸어 하염없이 울기도 했다. 마르타는 외로운 노인이었던 것이다. 때마침 그 때는 아바가 직장을 잃었을 무렵이었고 아바는 자신의 구구절절한 인생사로 자신의 엄마를 걱정하게 만들기는 더욱 싫었기 때문에 마르타의 제안에 따라 마르타와 잠시 함께 살기로 한다. 게다가 마르타는 자신과 낮 시간을 함께 보내준다면 매달 정식 급여까지 준다고 약속한다. 그리하여 아바는 이 집에 와 별로 친하지도 않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이 집에서 함께하는 첫 식사 자리에서 마르타는 갑자기 옛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과거, 아바의 아버지의 숱한 여성 편력과 흑인에 대한 편견, 차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라도 마르타에게 할머니 노릇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갖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아바에게 선물한다. 아바 역시 평생 자신의 삶에서 부재했던 아버지 대신 할머니와라도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 킹은 여전히 이 집과 마르타에게 분명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며 한 달 동안 살아보고 난 후 여기서 머물지 말지 결정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킹의 예감은 적중한다. 친절하고 우아해 보이기만 했던 마르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고 치매 증상까지 시작되자 자기 안에 있던 인종적 혐오까지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아바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아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종적 혐오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자신의 외증조 할머니 조세핀을 떠올린다. 조세핀은 노예 제도에서 해방된 후 스스로 농장을 일구어 낸 대단한 흑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당시 흑인에 대한 혐오는 여전히 미국 사회 내에 뿌리 깊게 남아 있었고 KKK단('Ku Klux Klan'의 약자, 사회 변화와 흑인의 동등한 권리를 반대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미국 남부의 백인 비밀 단체)의 습격에 늘 대비를 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세핀은 이웃집에 새로 이사 온 샬롯과 베언 두 부부를 알게 되었다. 그 후, 샬롯은 직접 만든 잼을 들고 오거나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며 조세핀을 찾아오곤 했다. 샬롯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 하나만 믿고 외딴 곳에 이사 오는 바람에 부쩍 외로움을 타고 있었고 농사도 잘 안 되는 힘든 상황 때문에 조세핀에게 더욱 의지하고 싶어했다. 조세핀은 백인 여성인 샬롯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우정이 싹 트게 되었다. 조세핀의 주변 흑인 지인들은 백인과 흑인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조세핀은 임신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실패감만 맞보고 있는 샬롯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조세핀은 샬롯 부부가 KKK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난 배신감과 공포감에 빠지게 된다. 서로 다른 시간 대에 살았던 두 흑인 여성의 삶을 통해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차별 문제와 가족, 희망과 자유에 대해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가렛 윌커슨 섹스턴 (Margaret Sexton-Wilkerson)은 다트머스 대학에서 문예창 작을 공부하고 UC 버클리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데뷔작인 <A Kind of Freedom>으로 'National Book Award'와 'Northern California Book Award'의 수상 후보에 오른 바 있으며 'Crook 's Corner Book Prize'와 'Black Caucus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수상한 바 있다.



제목 : GOLDILOCKS

가제 : 아탈란타호 프로젝트

저자 : Laura Lam

출판사: Wildfire

발행일: 2020년 4월 3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SF

*** 마션과 시녀이야기가 합쳐진 것 같은 이야기**

30년 전, 식물학자 나오미 러브레이스 박사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을 꾸려 새로 발견된 행성 '카벤디쉬'를 향해 가고 있었다. 지구는 이제 길어봤자 30년 정도밖에 그 수명이 남아있지 않았고 인류는 새 집을 찾아야만 했다. 나오미는 이 모든 일들을 돈이나 명성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은 그녀의 공로를 퇴색시키기 위한 온갖 소문들과 거짓말을 만들어 내기 바빴다. 하지만 그녀는 30년간 꾸준히 인류의 번영을 위해 홀로 노력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끔찍한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미국 미시건, 곧 우주선이 발사될 이 현장에는 우주선에 탄 선원들의 가족이나 구경꾼들, 언론사 기자들, 방송국 카메라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미국 나사 우주선 이륙장 보다 더 큰 이 곳에서 곧 발사될 우주선은 다른 평범한 우주선들과는 전혀 달랐다. 우주선에 타고 있던 나오미는 주먹을 꽉 쥔 채 우주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넣고 잔뜩 긴장해 있었다. 모든 신체 감각이 갑자기 둔해지기 시작했고 촉각도, 후각도, 시각도 순간 전부 마비된 것만 같았다. 카운트 다운 넘버가 점점 1에 가까워져 가자, 나오미는 우주선 이륙장의 풍경을 상상했다. 한 때 냉전 시대 비밀 로켓 발사 장소였던 이 곳은 원래 언제나 관광객으로 붐비던 곳이었고 풀들이 잘 자라는 덕분에 사람들이 피크닉을 오곤 했던 관광 명소였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산성 기반암으로 덮인, 생명체가 전혀 자랄 수 없는 독성 물질이 가득한 황폐한 땅이 되어 있었다. 단순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구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이 우주선에 탄 다섯 명의 여성들만이 지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우주선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이 작업은 모두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우주선의 운영 또한 모두 자동화된 시스템 하에 운영 되고 있었다. 나오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기계뿐이었다.

나오미와 나머지 여성 대원들인 이렌느, 옥사나, 제리는 2주 전 모두 잠들어 있던 늦은 밤 비밀리에 이곳까지 왔다. 나오미는 모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혹시 누군가에게 자신들이 발각이라도 될까봐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이륙을 앞둔 순간 이 우주선 아탈란타호의 다섯 명의 여자들은 로봇이 불러 주는 카운트 다운 소리에 맞춰 함께 구호를 외쳤다. 그 순간, 나오미는 두개골이 흔들리면서 이가 다닥다닥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광대뼈의 피부가 밀려나가는

듯한 느낌에 얼굴이 얼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를 믿고 여기까지 온 나머지 네 명의 여성들은 승리감에 취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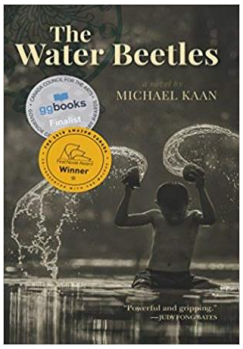
사실 우주선이 발사되기까지 지난 많은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 나오미는 자신의 목표가 결코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당시 지구의 위기는 많은 여성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세상은 여성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가려 했었고 나오미와 그녀의 네 명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잃었던 것을 되찾고 싶어했다. 그리고 이들의 뒤에는 인류의 새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호손 기업의 CEO이자 나오미의 양어머니인 발레리 블랙이 있었다. 발레리는 원래 나오미의 엄마 캐서린과 함께 호손 기업을 창립한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나오미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나오미를 대신 길러준 사람이었다. 또한 발레리는 우주선의 캡틴이기도 했다.

아마 지금쯤 보수파 정치인들은 호손사의 CEO인 발레리 블랙 박사와 자신들의 우주선을 훔쳐 달아난 것이라며 언론에 떠들면서 나오미와 나오미의 동료들을 비난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나오미와 네 명의 여자들이 훔친 것은 우주선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성들이 다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행성, 바로 그들만의 미래를 가지려고 한 것뿐이었다. 원래 나오미는 아홉 살 때 처음 발레리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점차 발레리와 자신의 부모들이 저지를 일들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어떻게든 발레리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했다. 하지만 나오미는 아탈란타호 프로젝트에 강렬히 이끌렸고 결국 발레리의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발레리의 프로젝트에 점점 발을 들이밀더니 발레리가 직접 돈과 노력을 들인 이 프로젝트를 빼앗아 나사측에 빼돌리려 했다. 심지어 코트란 대통령은 원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네 명의 여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몰아내고 행성 카벤디쉬까지 다 정부의 소유로 만들 계획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옥사나, 제리 그리고 제리의 아내인, 이렌느는 모두 코크란 대통령의 여성 혐오정책이 시행되기 전 나사를 비롯한 우주 과학, 항공 및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던 중 위기에 처한 인물들이었다.

세상이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여자들은 점점 직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여성들의 여권과 은행 계좌까지 무효화시켰다. 게다가 양복을 차려 입은 남성 기독교인들은 경전을 인용하며 여성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고 여성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새로운 땅을 향한 이들의 도전은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우주 정거장과 국제 우주 센터에서는 나오미의 행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미의 예상과는 달리 적은 바로 우주선 안에 있었다. 천천히 불타오르며 끊임없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페미니즘 공상 과학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라 램 (Laura Lam)은 『Pantomime』,『False Hearts』를 포함한 여러 공상 과학 소설의 저자이며 에든버러 네이피어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THE WATER BEETLES

가제 : 1942년

저자 : Michael Kaan

출판사: Goose Lane Editions

발행일: 2017년 4월 11일

분량 : 360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이 소설을 두고 '인상적인 데뷔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소 평가에 불과하다. 이 책은 즉시 '정전(cannon)' 리스트에 들어가야만 한다."-「Winnipeg Free Press」**

'릉'씨네 가족은 홍콩에서 여유롭고 화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1941년 12월, 일본이 홍콩을 침략하자 홍콩의 어두운 운명과 함께 릉씨 일가에도 점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1942년 여름, 광동 지방 릉씨네 가족 둘째 아들 청만은 물방개들을 바라보고 있다. 청만은 친구들과 달리 가장 작은 물방개를 택했고 차라리 물방개가 되어 이곳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그들이 서 있는 길은 끝이 없어 보였고 사람들은 누가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 하더라도 참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했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다. 행군이 이어지고 있던 주변 마을은 통째로 불에 탄 채로 세상에서 버려진 지 오래였고 신성한 사원들 또한 마구잡이로 파괴되었다. 그리고 길 곳곳에는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었는데 청만은 그 사람들 위로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애써 그 참혹한 광경들을 보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써야 했다. 하루 중 너무 더운 때가 찾아오면 이 지옥 행군을 감행한 일본 군들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하지만 일본 군들이 다시 대나무 채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언제든 곧 일어서야만 했다.

이 모든 비극은 일 년 전 12월에 시작되었다. 일본 군이 홍콩을 침략하기 전까지만 해도 릉씨네 가족은 정원에서 파티를 열고 상류층만 가는 학교에 다니며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군이 홍콩 정부를 점령하자, 길에는 군인들의 행진이 이어졌고 도시 전체는 황폐해지고 말았다. 이미 가장도 없었던 청만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대저택에 꽁꽁 몸을 숨기고 있는 것 뿐이었고 마음 착한 어머니는 다른 친구들까지 숨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곧 일본군들은 저택 밖에 서서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수도까지 차단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울음 소리와 피 묻은 폭력으로 물든 괴성이 들리는 바람에 저택 사람들은 잠조차 쉽게 이룰 수 없었다. 얼마 안가 저택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고 어느 날 아침 한 소녀가 사라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족이 헤어지는 것만큼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던 청만의 어머니는 결국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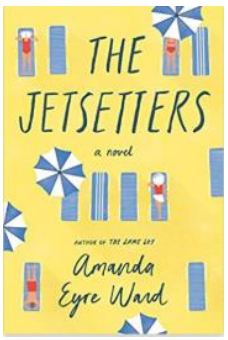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시골로 대피시켜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마침내 청만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가족의 부를 지켜줄 비밀을 담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형 륵, 여동생 웨이밍, 열아홉 살의 형수 성링과 함께 저택을 떠나기로 한다. 청만의 일행은 밤에 저택을 탈출해 한 연락선에 올라탔다. 다행히도 그들은 일본군들의 눈을 피해 삼촌이 살고 있는 '타이 포'라는 중국 시골지역까지 무사히 가는데 성공했다. 아이들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홍콩에서 보다는 훨씬 안전한 중국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골은 도시와 달리 봉건 문화의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었고 홍콩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진 중국의 가부장적인 규칙들과 가혹한 정책은 아이들의 마음을 점차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온화해 보이기만 했던 삼촌이 인민 처형식을 집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아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안내인은 커녕, 소개장도 하나 없이 서둘러 그곳을 도망쳐 나왔다. 아무 준비도 없이 도망치고 있던 아이들은 갑자기 시작된 비행기 공습으로 계획을 바꾸고 '와잉'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수중에 남아 있는 돈으로 집을 구하고 홍콩에 있는 엄마와 연락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 여정 중 청만은 시골의 삶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젊은 부부와 친구가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역시 오래가지 못했고 이곳까지 일본 군들이 침략해 마을 전체를 휘어잡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렸다. 결국 릉씨네 가족 아이들과 다른 포로들은 그들이 갇혀 살게 될 강제 수용소를 짓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때때로 청만과 륵은 일본 군들에 명령에 따라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잔악한 범죄에 동원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 군들에게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자 일본인들은 일단 아이들을 말 농장으로 보낸다. 아이들은 비참하긴 하지만 그나마 편안한 삶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생활도 잠시뿐, 릉씨네 가족의 아이들은 또 다시 다른 폭력에 노출된다. 청만은 중국 아이들로 가득한 그 헛간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곳에서 늘 철저한 이방인이며 고아 신세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머지않아 릉씨네 아이들은 서로 헤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동생과 형수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다. 이곳에서 여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져만 갈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소녀들이 한꺼번에 두 명이나 사라지게 된 것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릉씨네 소년들에게 나머지 소녀들의 행방을 추궁한다. 아이들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자 그들은 아이들을 감옥에 가둬버린다. 과연 이 아이들은 다시 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역사적 비극이 한 개인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이클 칸 (Michael Kaan)은 홍콩 태생 아버지와 캐나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이다. 그는 원래 정신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첫 소설을 썼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JETSETTERS
가제 : 제트족
저자 : Amanda Eyre Ward
출판사: Ballantine Books
발행일: 2020년 2월 4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가족소설

*** '박장대소하게 만들지만 영원히 마음을 울릴 소설' – 퓰리처상 수상작, 베스트셀러 『Less』의 작가 앤드류 션 그리어**

*** '감정이 풍부하고, 진솔하고, 가차 없고, 영리한 이야기' – 『White Fur』의 작가 자딘 리베어**

식구가 많으면 북적북적 정신없이 늘 즐거울 거라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 인생을 사느라 바빠지면 일년에 한 번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서로 얼굴을 보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 드문 기회조차 서로 반기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일흔 하나,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가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샬롯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이 흐르는 집안을 멍하니 둘러보면서 세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으로 가득했던 30 여 년 전의 좁은 집을 떠올린다. 큰 딸 리와 둘째 아들 코드, 그리고 막내딸 리건까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 세 남매를 혼자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면서도 샬롯은 세상을 일찍 떠난 남편이 주지 못한 사랑을 듬뿍 주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 그나마 그 노력 덕분에 세 아이들 모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만 할 뿐,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샬롯의 머릿속을 스친다. 때마침 귀를 솔깃하게 하는 광고가 샬롯의 눈 앞에 나타난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등 우승자에게는 제트족이 될 기회를 선사합니다!' 라는 문구부터 시선을 확 끄는 광고였다. 제트기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는 속 좋은 사람들의 팔자가 부러운 건 아니지만, 큰 딸이 여섯 살일 때 아직 살아 있었던 남편까지 온 식구가 섬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것이 마지막 가족여행이었다는 생각에 갑자기 아쉬움이 몰려왔다. 게다가 세 아이들 모두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샬롯 자신도 십대 시절에 유럽을 잠시 다녀온 이후 다시는 외국에 갈 기회가 없었다. 70세가 넘은 노인에게 이야깃거리야 넘쳐나는 법이니, 흥미로운 걸로 잘 골라 써보면 어떨까? 친구의 장례식장에 다녀와 울적한 마음에 와인 한 잔을 홀짝이던 샬롯은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를 용기와 추진력으로 그 자리에서 크루즈 여행 티켓이 걸린 공모전에 글을 출품한다. 그리고 당당히 1등상을 거머쥔다.

샬롯이 기억하는 마지막 여행은 세 아이들의 기억에도 조각처럼 생생히 남아 있었다. 겨우 여섯 살이었던 리는 나중에 그림으로 만들어져 엄마 집 벽난로 뒤에 걸린 가족 사진을 찍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아주 비싼 카메라라고 아빠가 애지중지하던 니콘 카메라를 들고 앞에 섰을 때 엄마 주변에 둘러섰던 자신과 두 동생들은 이미 최대한 기분 좋은 척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었다.

아빠는 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침실에 틀어박혀 낮에도 반나절 이상 잠만 자는 일이 많았고 아이들이 떼를 쓰고 울거나 소리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족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려고 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는 걸 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네 살배기 남동생 코드도 아빠를 무척 두려워하면서도 아빠가 공 던지기라도 하자고 하면 울 것 같은 눈을 하고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 자신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그렇게 해야 얼굴은 웃고 있지만 늘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의 기분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리는 그런 노력이 크게 힘들지 않았다. 어쩌면 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가 절대 망치면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그 휴가는 정말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되었다.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했던 것은 리였다. 먹구름 잔뜩 낀 아빠 곁에서 늘 도망가고 싶었지만 어린 동생들만 두고 갈수가 없어 손톱을 잘근잘근 씹어대며 억지로 한 방에 있었던 어린 시절처럼, 그 날 이후 리는 과거로부터 한없이 달아나고 싶었지만 트라우마처럼 머리 한 쪽에 남은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 살아왔다. 어릴 때부터 빼어난 외모로 모두의 시선을 받았던 리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무작정 할리우드로 향했지만 성공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 여겼던 아빠의 모습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코드 역시 투자자로 크게 성공해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허전한 마음에 시달렸다.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반항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곤란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하고 외면하려고만 하는 자신이 코드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음에도, 그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신이 싫었다. 샬롯의 막내딸, 리건 역시 어린 두 딸을 키우는 일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아빠 없이 홀로 자신과 언니, 오빠를 돌보던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엄마가 술김에 덜컥 참여한 콘테스트에서 여행 상품권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무조건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나야 한다는 엄마의 확고한 태도에 각자의 이유로 방황하던 세 남매는 일제히 엄마를 따라 나선다. 아테네까지 1등석을 타고 이동한 다음 9일간 로마를 거쳐 바르셀로나까지 최고급 유람선 '스플렌디도 호'를 타고 떠나는 크루즈 여행은 이렇게 갑작스레 시작됐다. 잡히지 않는 성공에 절망 직전에 이른 리와 동성 연인과의 사랑으로 극심한 행복과 혼란을 동시에 느끼는 코드, 화가가 되려던 꿈을 접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개인적인 삶은 거의 다 잃어버린 리건은 두렵기도 설레기도 하는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여행길에 나선다. 도망갈 곳 없는 망망대해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묻어두었던 비밀과 하얀 거짓말들, 그리고 미처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자의 혹은 타의로 끄집어낸다. 그리고 그제야 그토록 바라던 과거와의 화해를 위해서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유쾌하고 위트가 넘치면서도 희망과 가족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생동감 넘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만다 에어 워드(Amanda Eyre Ward)는 『How to Be Lost』, 『Close Your Eyes』, 『The Same Sky』 등 평단의 호평을 받은 소설을 써온 소설가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글을 쓰고 있다.

Praise and publicity updates for
THE JETSETTERS

****REESE'S BOOK CLUB x HELLO SUNSHINE MARCH PICK****
"Are you ready to set sail on a literary adventure? I love the sense of adventure in this story—it's about a disconnected family that reunites on a cruise ship traveling through Europe. If you're packing for Spring Break, be sure to include a copy of this fun read." **—Reese Witherspoonat** **REESE'S BOOK CLUB x HELLO SUNSHINE MARCH PICK**

"At the heart of [Amanda] Ward's comic story of family estrangement and long-buried trauma is the adage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ride'—but her novel's ultimate destination is both surprising and transporting."***—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Editors' Choice)**

"[Amanda] Ward reveals she has a way with humor. . . . The author's eye for forced fun is exquisite. . . . There is a real poignancy in this novel, as wounded characters struggle to regain childhood loyalties. Ward nails how family expeditions are ruined and saved, over and over again, by fleeting moments of connection and the consensus to survive without killing one another."**—Judy Blundell,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Witty, insightful, and full of heart . . . Defined by a long-ago tragedy and long-held grudges, grievances, and resentments, the Perkins clan has plenty of reasons to keep secrets from one another—secrets that inevitably, over the course of their forced family fun vacay, spill out. . . . The perfect novel to read in a pool lounger as you sip a colorful cocktail. Mediterranean sunset optional."**—Christina Baker Kline, #1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Orphan T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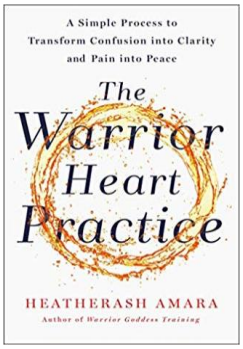
"What a joy! Treat yourself to *The Jetsetters* and let Amanda Eyre Ward's wit, poignancy, and insight take you away. You deserve it. . . . The funniest novel that ever broke your heart."**—Andrew Sean Greer, *New York Times* bestselling and Pulitzer Prize–winning author of *Less***

"Heartwarming, funny, and poignant, *The Jetsetters* kept me up late turning the pages. . . . Compulsively readable."**—Jean Kwok,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Searching for Sylvie Lee***

"This book has you completely devoted to the family—to their heartbreak, their secrets, their bravery, their joy—by page two. Ward crystallizes the amorphous nature of relationships in a way that gets you laughing and then bawling, then laughing again, then bawling, and ultimately feeling deliriously alive. . . . Emotional, authentic, badass, brilliant."**—Jardine Libaire, author of *White Fur* and *Here Kitty Kitty***

"Secrets can be sinister, or they can set you free. In Amanda Eyre Ward's playful, poignant The Jetsetters, one family's secrets take you on a romp through Europe, and deep into hearts groping their way back to love. I adored every moment of this delightful book."**—Meg Waite Clayton, internationally bestselling author of T*he Last Train to London***

NON-FICTION



제목 : THE WARRIOR HEART PRACTICE

가제 : 마음의 방

저자 : HeatherAsh Amara

출판사: Yellow Kite

발행일: 2020년 1월 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나 자신과 나의 진정한 본성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책"- 『 The Four Agreements』의 저자, 돈 미겔 루이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혹은 아주 오래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내 안에서 자라난 자기 비판적 내면의 목소리로,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며 나를 괴롭히는 그 부정적인 목소리의 근원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 혹은 나의 편견으로부터 비롯된 허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스승이자, 이 책의 저자 헤더 아쉬아마라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빠져 있게 될 경우, 우리는 정말 영영 길을 잃게 되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온전한 나 자신을 이루는 모든 마음의 지혜를 더 이상 스스로 인식할 수 없게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대화들의 연결고리를 끊고 우리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그녀의 이론은 10세기경 멕시코 지역에서 번성했던 인디언 부족인 '톨텍(Toltec)'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톨텍족은 전사들의 마음에는 감각, 이야기, 진실, 의도라는 이름을 가진 네 개의 방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느낌의 방'에서는 고통이 반복될 경우 감정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 이 방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면 인간은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도 그 외에 여러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들 또한 함께 느끼게 된다. 한편 '이야기 방'에서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오래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과거와 현재까지 이르는 이야기의 궤적들을 호기심을 가진 태도로 좇다 보면 그 케케묵은 이야기들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진실의 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태도로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나에 관한 객관적인 진실과 주관적인 진실의 차이를 구분하게 되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도의 방'에서 우리는 외부의 어떤 조건과도 관련 없이 오직 내가 진실의 방에서 깨달은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과 내 행동의 의도는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저자의 안내에 따라 독자들이 스스로 이 네 개의 방을 거닐면서 자신의 현재 정서적, 정신적 상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치유의 빛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개의 방에서 수집한 지식을 토대로 실생활에서 마음 훈련을 실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안내한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자신의 선입견과 사람들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원하는 진정한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서문
제 1 장. 연결 기억
큰 영혼과 작은 영혼
작은 영혼의 두려움
우리의 길 되찾기
제 2 장. 방들에 대해서
네 개의 방
다시 빙빙 돌기
제 3 장. 느낌의 방
불쾌함을 향해 나아가기
출구 지정하기
당신의 감정을 치유하는 것
저항을 넘어서서 이동하기
제 4 장. 이야기의 방
엉망진창이 된 마음 속으로 들어가보기
모든 것을 경험해 보기
당신의 인식을 높이는 것

<저자 소개>

헤더아쉬 아마라 (HeatherAsh Amara)는 톨텍의 지혜, 유럽의 샤머니즘, 불교 및 아메리카 원주민 의식을 포함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있으며 전세계를 무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목 : THE LONGING FOR LESS

가제 : 미니멀리즘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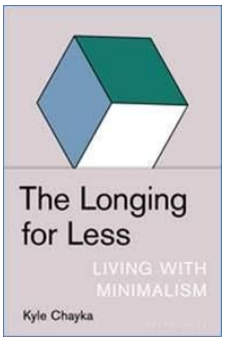
저자 : Kyle Chayka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20년 1월 2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예술



*** "이 책은 미니멀리스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아이디어 자체가 어디서 왔으며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적용되었는지 알려준다."-「Town & Country」**

"적을 수록 낫다 (Less is more)"라는 이 말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마리 콘도와 같은 정리 혹은 버리기 전문가들은 우리가 집에 쌓아만 놓고 쓰지 않았던 물건들만 버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윤택한 생활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물건뿐만 아니라 식단을 간소화하고 이메일함을 잘 정리하는 것을 꼽기도 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이러한 기류는 잘 반영되었다. 사람들을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고요해 보이고 바람이 잘 일 것 같은 그런 정갈하게 꾸며진 인스타그램 속 세상을 선망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단어는 다름 아닌 고급 건축 양식을 일컫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다. 이렇게 이 단어는 점차 본래의 의미에서 더 넓게 뻗어 나와 현대인의 구매 및 소비 생활과 관련된 인기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차이카는 이 용어가 사실은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가치 있는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현존하는 문화 비평가 중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지난 몇 년간 주요 간행물에서 미니멀리스트 동향에 대한 글을 써왔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미니멀리즘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시간, 공간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많은 이들이 이미 미니멀리즘적 삶을 꿈꿔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는 1965 년, 영국의 예술 이론가인 리처드 월하임이 '미니멀 예술'이라는 에세이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였다. 그는 아직 예술이라고 규정되지 않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한 작가 군들의 특징을 분석해보려고 했다. 그가 보기에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들은 예술이라기 보다는 공업품에 더욱 가까워 보였다. 그 당시 '도널드 저드'라는 한 예술가는 미술관 바닥에 평범한 나무 상자를 설치했고 단 팔빈은 그저 벽에 컬러 형광등을 달아두었으며 쿠사이 마요이는 안락의자와 소파 같은 일반적인 가구에 천으로 남근 형태 같은 돌출물을 만들어 붙여 전시해두고 그것을 자신들의 예술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예술품들은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과 너무나 상이했기 때문에 월하임은 물론이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들의 예술 작품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월하임이 명명한 '미니멀 아트'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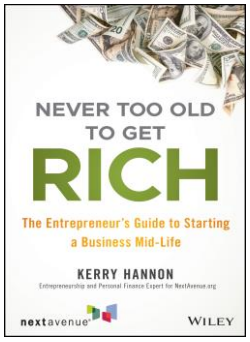
간을 가장 기본적인 감각적 인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예술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후 미니멀리즘은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존 케이지, 줄리어스 이스트맨과 같은 작곡가,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맨해튼 한복판에서부터 텍사스의 사막, 교토의 한 뒷골목까지 미니멀리즘의 대가들의 작업 현장을 찾아 다니며 그들의 특별한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략' 혹은 '제거'가 아니라 '현재성'임을 강조한다. 우리의 미니멀리즘적 욕구와 심오한 정서적 욕망에 대해 탐험해 보이는 우아한 탐구서이다.

<목차>

1. 감축
2. 공허함
3. 침묵
4. 그림자
감사의 글

<저자 소개>

카일 차이카 (Kyle Chayka)는 프리랜서 작가이자 평론가 뉴욕 타임즈 매거진, 뉴욕 매거진, 뉴 리퍼블릭, 롤링 스톤, n + 1, 복스, 파리 리뷰 및 여러 간행물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언론인들을 위한 뉴스레터이자 디지털 커뮤니티인 Study Hall 의 공동 설립자이다.



제목 : NEVER TOO OLD TO GET RICH

가제 : 망설이는 당신에게: 50세 이상 예비 사업가들을 위한 가이드

저자 : Kerrry Hannon

출판사: John Wiley & Sons

발행일: 2019년 6월 1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경영, 자기계발

*** "기회를 향한 그녀의 메시지 속에는 열정과 격려가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는 실용적이고 명쾌한 조언들과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Purpose and a Paycheck』의 저자, 크리스 파웰**

누군가 스타트업계에 뛰어든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20대에, 기술 전공자인 젊은이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꿈을 꾸는 일이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니듯 나이 지긋한 중년에게도 새로운 일이나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가슴 뛰는 일이 될 수 있다. 개인 자산 전문 관리자이자 경력 변경 전문 컨설턴트인 저자 케리 하논은 특히, X 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들 사이에서 은퇴 후 혹은 인생 중반기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인생을 재구성 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 사업을 시작한 경영인들보다 45세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영인들이 2배나 높은 사업적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언론에 등장하는 젊은 20 대 경영인들의 성공 신화는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라는 것이다.

먼저 저자는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중년, 노년 시기에 일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행위 자체가 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분석했다. 중년의 나이에 기업가가 되는 것에는 두 가지 주요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연구에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일을 계속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건강하다는 것이다. 둘째,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후기 생애와 노화에 대한 긍정적 자기 인식 효과를 낳는다. 보스턴 대학교의 조교수이자 은퇴 연구자인 할보르센 박사는 나이가 많은 기업가들은 일을 하면서 삶의 전반에 대한 유연성을 획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요 동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들은 젊은 시절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자율성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특징들이다.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 인생의 후반기에 기업가가 되기 위해 미리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및 금융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할보르센 박사는 이러한 자산은 젊은이들보다 중년, 장년층의 사람들이 더 풍부하게 이미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적 성공률 또한 이들이 더 높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책에서 하논은 수년간의 컨설팅과 전문 연구 자료들과 인생 중후반기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50 대 이상을 주 독자층으로 삼고 인생의 제 2 막에서 성공을 거둔 사업가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에 있어 가장 필요한 성공 요소들, 자원, 계획,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면밀히 짚어준다. 은퇴 후, 혹은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만의 사업에 도전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영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이다.

<목차>

머리말
감사의 말
저자에 대하여
서문
제 1 부. 열정을 사업에 쏟아 붓기
제 1 장. 조명, 카메라, 액션
제 2 장. 돈의 전문가
제 3 장. 군대에서 메를로까지
제 4 장. 커피 숍 안 조종석
제 5 장. 보석 장식
제 6 장. 앞서 떠나기
제 7 장. 글쓰기
제 8 장. 야단법석

<저자 소개>

케리 하논 (Kerry Hannon)은 경력 변경, 개인 금융 및 퇴직에 관한 전문가이지 전략가이다. 그녀는 종종 TV 와 라디오에 출연하여 전문적 지식을 대중들과 나누고 있으며 전국 컨퍼런스에서 인기있는 기조 연설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목 : FREE AND EQUAL

가제 : 자유, 평등 그리고 존 롤스: 진보 정치의 대안을 모색하다

저자 : Daniel Chandler

발행일: 2020년 봄

분량 : 약 280 페이지

장르 : 사회, 철학

*** 정치 철학자 존 롤스의 사상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책**

서구 사회는 지금 전체적으로 커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이 현재 정치 및 경제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정당 대신 자신들을 대변해 줄 새로운 정당을 찾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의 세대는 앞으로의 미래가 열려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누렸던 패권 질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할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권위적인 포퓰리스트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 속도와 높은 득표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문명의 기본 토대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대니얼 챈들러는 이 현상을 위기인 동시에 진보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로도 보고 있다. 예전만해도 급진적인 대안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수 십 년이 지난 지금, 진정으로 진보적인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와 경제 모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적, 지적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보적인 가치란 과연 무엇일까? 최근 제레미 코빈과 버니 샌더스와 같은 좌파 진영의 정치인들을 보면 급진주의의 성공 가능성이 예전보다 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민주주의와 매우 대담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운동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진보적 정치의 철학적, 윤리적 토대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는 아직 부재중인 상태이다. 실천이 이론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 결과 더 깊은 일관성과 방향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었고 대중들의 상상력을 이끄는 데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저자는 진보주의 진영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명한 정책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통일된 비전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진보주의적 정치관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는 20 세기가 낳은 위대한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의 생각을 전격적으로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롤스는 학계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까지 실제 정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독창적인 평등주의 자유주의를 고안해낸 철학자이다. 롤스의 아이디어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전통의 장점을 결합하여 사회 경제적 정의는 물론이고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롤스의 철학이 현재 간과되고 있는 새로운 진보 정치의 사상 구

축을 위한 훌륭한 지적 자원이자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평등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반목하고 있는 좌파 진영을 통합하고 변화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정치 사상서이다.

제 1 부
제 1 장. 정의의 원칙
제 2 장. 선택 원칙
제 3 장 질문과 비판
제 2 부
제 4 장. 권리
제 5 장. 민주주의
제 6 장. 기회의 평등
제 7 장.공정한 경제 1.
제 8 장. 공정한 경제 2
결론

<저자 소개>

다니엘 챈들러 (Daniel Chandler)는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다. 그는 케임브리지와 런던 정경 대학에서 경제학, 철학 및 역사학 학위를 받았으며 노벨상 수상자인 아마트리 센의 지도하에 하버드에서 유학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공공정책 기관에서 일하며 영국 총리실에서 정책 고문으로, 싱크 탱크의 연구원으로 일했다.

제목 : IN PRAISE OF WALKING

가제 : 걷기 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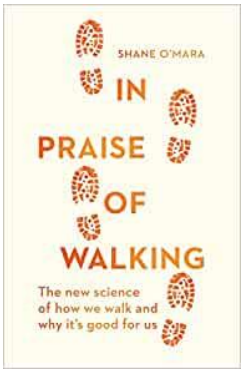
저자 : Shane O'Mara

출판사: Bodley Head

발행일: 2019년 8월 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건강



*** "인간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서 걷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통찰력과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주는 토론들로 가득한 책."- 『The Gendered Brain』의 저자, 지나 리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 중엔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 발로 걷는 존재', '직립 보행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직립 보행은 우리의 손을 자유롭게 해주었고 걷는 동안 두 손으로 다른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는 거의 모든 다른 육지 동물이 사족 보행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치 놀라운 묘기와도 같은 것이다. 1952 년 신경학자이자 현상학자인 어윈 스트라우스는 인간의 걷는 행위와 인간의 정체성 및 경험 사이에 어떤 감각적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한 바 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걷는 행위는 인간의 자기 보호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직립 보행은 우리가 보고 인지하는 세계와 사회적인 세계를 포함한 세상과 인간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인간의 가까운 친척 격인 침팬지는 손과 발을 조합하여 걷는 중간 형태의 보행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앞다리 손가락 관절을 활용하여 걷는 '너클 워킹 (Knuckle-walking)'법으로 그다지 효율적인 보행법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새들 또한 두 다리로 땅을 딛고 걷지만 새들은 척추를 인간처럼 똑바로 세우고 걷진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직립 보행 덕분에 인류의 근원지라고 알려진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시작해 얼음이 가득한 땅인 먼 알래스카, 뜨거운 태양이 내리 쬐는 호주까지 뻗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쉐인 오마라는 걷기의 이점이 단순히 우리의 진화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걷기는 우리의 정신, 신체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우선 의학적인 관점에서 걷기는 인간의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걷기는 뇌의 여러 부분을 활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소리 및 느낌을 통해 세상을 다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타인들과 함께 걷는 이른 바 '사회적 걷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함께 걷는 사회적 걷기 활동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에 반영된다면 다양한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이 책에서 걷기가 가지고 있는 기적적인 능력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걷는 행위는 수백만 년 전 바다에서 시작된 진화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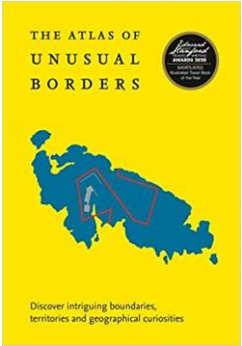
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기술임이 밝혀졌다. 최근 연구에서는 걷기를 통해 우리의 뇌와 신경계가 어떻게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지, 이 붐비는 도시를 거닐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GPS 시스템이 어떤 마법을 수행하는지 보여준다. 걷기는 인간의 근육과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며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고 치유 할뿐만 아니라 뇌의 노화를 늦추거나 또는 젊어지게까지 만들어준다. 게다가 걷기는 우리의 사고를 자극시켜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스트레스 수준까지 낮춰준다. 무궁무진한 장점을 가진 걷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대한 건강 안내서이다.

<목차>

1. 걷기가 당신에게 좋은 이유
2. 아프리카에서 걸어나온 인류
3. 걷는 방법 : 걷기의 역학
4. 걷는 방법 : 어디로 가야할까?
5. 도심 속 걷기
6. 몸과 뇌를 위한 향유
7. 창조적 인 걷기
8. 사회적 걷기

<저자 소개>

셰인 오'마라 (Shane O'Mara)는 더블린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뇌 연구 교수이다. 그는 유럽의 신경 과학 연구 센터 중 하나 인 'Trinity College of Neuroscience'의 소장이다. 저서로는 『Why Torture Doesn't Work: The Neuroscience of Interrogation and A Brain for Business』, 『A Brain for Life』등이 있으며 여러 주요 잡지와 신문사 과학 논문 저널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THE ATLAS OF UNSUAL BORDERS

가제 : 국경의 매력: 국경에 얽힌 흥미로운 스토리

저자 : Zoran Nikolic

출판사: Collins

발행일: 2019년 10월 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역사, 지리

*** 특이한 국경들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소개하는 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지구는 수많은 갈등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국경'이라는 이름 하에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잔재로 남아있는 몇몇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법적 투쟁 가운데에 놓여있다.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특이한 사연과 역사를 가진 국경들의 모습과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도시나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국가의 경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국경은 그저 국가를 구분하는 선에 불과하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국경을 기준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규칙에도 사실 예외가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바로 그런 예외적 규칙이 적용된 세계 여러 국경에 대해 소개한다. 그 중에는 독일 내에 있는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에 속하지 않는 독일의 도시, 호텔의 스위트 룸 더블 침대를 가로 질러 나뉘어진 프랑스-스위스 국경, 논란의 중심이 된 모로코 내의 스페인 영토,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으로 나뉘어진 한 유령 도시에 이르기까지 특이한 국경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어, 메드루주세(Medurjecje)라는 지역은 원래 세르비아 영토 내에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0.5 마일 이상 떨어진 보스니아의 헤르체코비나에 속한다. 이 작은 마을 메드루주세는 27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400 헥타르에 이른다. 이 마을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보스니아 제국 시대 당시, 보스니아의 한 지방 통치자는 세르비아의 프리보이(Priboj) 지역 근처에 400 헥타르 정도 되는 부지와 숲을 선물했다. 그 후 오스트리아-헝가리와 터키 사이에 국경이 정해졌고 이 땅은 자동으로 합스부르크 제국이 점령한 보스니아에 합병되게 되었다. 그 후로 이 지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지방 자치 단체의 일부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 중 해당 부지에 '메드루주세'라는 마을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곳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마을은 세르비아가 공급한 도로와 전력,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요금은 세르비아에 정부에 지불해야 하지만 세금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납부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외에도 감각적인 일러스트들과 함께 흥미진진한 수많은 역사적 일화들이 소개된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리적 변칙에 대한 안내서이다.

<목차>

서문
특이한 국경들 : 소수 민족 집단 거주지, 기타 현상들
메드루주세,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세르비아
리아, 프랑스 | 스페인
브레조비카, 크로아티아 | 슬로베니아
캄피오네 디 탈리아, 이탈리아 | 스위스
벤반, 벨기에 | 독일
빙겐 암 호흐라인, 독일 | 스위스
바를, 벨기에 | 네덜란드
융 홀츠, 오스트리아 | 독일
키프로스와 국경
(이하 생략, 총 48개 지역 소개)

<저자 소개>

조란 니콜릭은 (Zoran Nikolić) 한때 현 세르비아와 유고슬라비아의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었던 곳에서 태어났다. 때문에 저자는 정치적 변화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했고 자연스럽게 지리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다. 지리에 대한 그의 관심은 동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결국 국경과 정치 지리는 그를 평생토록 매료시킨 연구 분야가 되었다.